

여수시의회 파행 계속... 시민들 거센 비난

시민단체 의장 사퇴 촉구·시의원들 피켓행으로 임시회 마비 의장 소환 조사·시의원 검찰 송치 등 시골... 정상화 여론 빚발

금품살포와 성추행 의혹 등으로 사실상 의정기능을 상실한 여수시의회(광주일보 10월 11일자 11면)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지역민들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 17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지역 시민단체의 박정재 의장(국민의당) 등에 대한 사퇴 촉구 요구와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의 본회의장 피켓행이 겹치면서 임시회 운영이 마비됐다.

이날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가칭 여수시민대책위' 소속 회원 30여명은 임시회 개최 전 여수시의회 앞에서 하반기 시의장 선거 관련 금품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와 본회의장 내 강제추행 연루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에서 "(의정선거 과정에서) 뇌물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시의원들이 자중해야 함에도 본회의장에서 성추행 의혹까지 일으켰다"면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시의원이 속한 정당은 의정선거와 관련해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임시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개최 전까지 의장 사퇴를 촉구했으며, 의장석 진입 등을 막기도 했다.

여수시의회의 이같은 파행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여수시민 안형주(32)씨는 "여수 발전에 힘을 모으려고 선출됐더니, 내부적인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정상화 돼 여수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부터 국민의당 소속 박정재 의장이 민선 6기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더민주 비례대표인 김보 의원의 지지를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경찰은 지난 17일 박정재 의장을 직접 소환해 첫 조사를 벌였으며, 박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국민의당 소속 3명의 시의원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검찰 송치는 지난날 28일 열린 제 17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매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던 박성미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반발 여론에 여수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최근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의회 파행을 주도한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본회의장에는 시 집행부 간부들과 많은 방청객이 몸싸움을 지켜보는 공개된 상황으로, 이사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미리 짰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재 의장도 임시회 개최사를 통해 "6대 후반기 개원 이후 의회 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 6월 치러진 하반기 의정선거에서 국민의당 박정재 의장은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3표를 얻어 12표에 그친 6선의 서완석 의원(더민주)을 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밤바다, 관악에 춤추다

마칭페스티벌 29일 팡파르... 14개팀 브라밴드 연주

여수의 가을밤을 화려하게 물들일 관악의 향연 '2016 여수 마칭(관악) 페스티벌'이 오는 29일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여수밤바다, 관악에 춤추다'를 주제로 여수밤바다와 하나가 된 관악의 울림이 바람에 실려 여수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국내 유명 마칭밴드팀과 지역 관악합주단 등 14개팀 500여명이 참가해 이순신광장을 비롯해 해양공원 일원에서 마칭 거리퍼레이드, 여수관악제, 마칭쇼 등 아름답고 흥겨운 브라밴드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마칭 밴드의 웅장하고 경쾌한 울림은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여수의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함성으로 울려 퍼질 것"이라며 "깊어가는 가을날 오후 여수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심금을 울릴 이번 연주에 많은 참여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칭페스티벌 추진위원회(061-920-2180) 또는 여수시 문화예술과(061-659-4738)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한화케미칼, 다문화가족 위한 사랑나눔

300여명 초청 어울림 한마당

여수국가산단 대표 기업 한화케미칼이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랑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한화케미칼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화케미칼 사택 운동장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를 열었다.

한화케미칼 소속 여수사회봉사단이 후원하고 여수다문화복지지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3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은 가족관계 회복과 국가별 문화교류, 전통 문화체

험 시간을 가졌으며 명랑운동회와 화합 레크리에이션, 축하공연, 가족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온 '판티란'은 낯선 한국에 온 자신을 며느리보다 딸처럼 대우하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시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낭독해 감동을 선사했다.

한화케미칼과 직원들로 구성된 한화 사회봉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협약을 맺고 행사 진행비 지원과 임·직원들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평득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은 "이번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해 더욱 행복해 나갈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기업으로 지역사랑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만들어요"

28일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여수시가 일반기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기업,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꾸는' 착한 기업들의 한마당 행사를 연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오는 28일 여수해양공원에서 개최된다.

여수지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청소년 구인구직관 운영, 경제기업 창업 컨설팅, 프리마켓 운영, 생산제품 전시·홍보·판매와 체험행

사, 문화예술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업별로 다양한 생산제품에 대한 전시·홍보와 판매, 사회적경제 미로 체험관 운영, 사회적기업 제품 감각할인 이벤트 등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 등을 직접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열어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인들이 함께 즐겁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장도 마련한다.

한편 문상업 여수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이날 지역 사회적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사회공헌성금을 여수시에 기탁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민이 됩시다' 전입신고 독려 홍보

국동 주민센터 직원·통장

여수시 국동 주민센터 직원과 통장 등 20여명은 최근 차량 통행이 많은 어항단지 상거리와 서희스타힐스 입구에서 미 전입세대의 전입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 여수시민이 됩시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홍보활동에서는 현재 여수에서 생활하면서 주소를

타 지역에 둔 주민을 대상으로 여수시로 주소를 옮기도록 안내하는 한편 여수시민이 되면 받게 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했다.

전준길 국동장은 "아직 전입을 하지 않은 세대간 전입신고 독려를 통해 여수시민으로서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입신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봉화산 유아숲체험원 인기...올해 4000여명 다녀가

여수시가 봉화산 산림욕장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이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산림욕장 안에 숲 교육장, 빗줄놀이터, 통나무정글다리 등 놀이시설을 설치해 숲속에서 자유로운 놀이는 물론 풀과 나무, 꽃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13년부터 숲체험원

에 숲해설가 2명을 배치해 매주 5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유치원 아동 2868명이 숲 체험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올해도 9월말 현재 어린이집 등 108개소에서 4065명의 어린이들이 숲 체험에 참여했다. 시는 매년 참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는 소라면 가사리생태교육관 주변 산림에 숲체험장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 |
PRINT PRODUCT DESIGN & FUN

광주 인쇄기반 아이디어 상품 기획전 개최

일시 : 2016년 10월 25일(화) ~ 31일(월)
 장소 :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문화광장

참가업체 : 문화디자인(종이새 피킹, 광주문화관광지도), 이안멀티콤(이미지 탁상용 시계, 캘린더), 정명인쇄사(화분커버) 꽃담소(카렌다형 컵코스터), 형제인쇄출판(하루종일 캘린더), 인맥스디자인(스토리인 광주 팝업, 컬러링카드) 마음515(광주 문화 선풍기, 페이퍼백), 두빈인쇄(페이퍼 베이스 커버), 해인기획(테이블웨어 장식세트) 리본(추억 캘린더, 유아용천연비누), 에이원아트(데일리리뷰즈 캘린더), 디자인블루아이(컬러링 캘린더) 직지프로세스(피크닉을 위한 종이도사리), 좋은디자인(지류와 전통문양을 이용한 조형) 나무와 달(시무지기로간 수달 무등산 보드게임), 우리출력(플래이노트 다이어리) 그루아이(버섯 스푼포크세트), 줘디자인스튜디오(레인보우 냄비 받침대) DNA디자인(두다다콩 페이퍼토이), 토요오(앵글랜, 티통), 듀리에(Honor & Victory)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광역시, qdc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본 기획전은 중소기업청과 광주광역시의 지원으로 (재)광주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었습니다.